 기획재정부		<b>보도자료</b>	
<b>보도일시</b>	<b>2021. 8. 3.(화) 16:00</b>	<b>배포일시</b>	2021. 8. 3.(화) 15:00
<b>담당과장</b>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승태 (044-215-2770)	<b>담당자</b>	이상홍 사무관 lsh0622@korea.kr

## 홍남기 부총리, 물가 점검 현장방문

- 대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이마트 둔산점 -
- 농축수산물 가격 추석 전까지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 -
- 계란가격 안정 위해 수입계란 소비자 직접판매 대폭 확대 -

-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'21.8.3(화) 오후 대전 "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"과 "이마트 둔산점"을 방문하여,
- 주요 농축산물 가격·수급 동향과 대형마트 수입계란 판매상황을 점검하였음

### < 물가 점검 현장방문 개요 >

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(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)

- 일시: '21.8.3.(화) 14:00~15:00

② 이마트 둔산점(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)

- 일시: '21.8.3.(화) 15:10~15:30

※ 참석자 : 농협경제지주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, 체인스토어협회 등

- 금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.6%로, 농축수산물, 석유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전기·가스요금 하락요인이 7월부터 소멸하며 6월에 비해 오름폭 확대
- 특히 7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월비 기준 5개월 연속 하락중이나 최근 폭염, AI 영향 잔존, 휴가철 축산물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9.6% 수준

\*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(전월비, %): ('21.3)△1.3 (4)△0.5 (5)△1.0 (6)△2.0 **(7)△0.4**

\*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('21.3)13.7 (4)13.1 (5)12.1 (6)10.4 **(7)9.6**

⇒ 이에 금일 현장방문은 농축산물 가격·수급동향과 수입  
계란 소비자 판매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

□ 홍부총리는 먼저 대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 
간담회를 통해 농축산물 가격·수급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 
논의한 후, 시장을 돌며 농산물 동향·폭염 영향 등을 점검

○ 현장점검 결과 배추·무·사과·배 등은 생산량 증가로  
가격 안정세 진입\* 또는 추석 전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이 전망\*\*

\* 배추 중도매인가격(원/10kg, 평년비): 6.30. 5,824(19%↓) → 7.30. 9,590(19%↓)

무 중도매인가격(원/20kg, 평년비) 6.30. 10,960(14%↓) → 7.30. 14,920(6%↓)

\*\* 사과 생산량(전망) : 475천톤(전년비 12.5%↑) / 배 생산량(전망) : 185천톤(전년비 39.7%↑)

○ 다만, 상추·시금치 등은 폭염으로 인한 생육지연으로 가격  
상승세 지속

\* 청상추 중도매인가격(원/4kg, 평년비): 6.30. 21,460(23%↑) → 7.30. 38,460(46%↑)

\* 시금치 중도매인가격(원/4kg, 평년비): 6.30. 17,860(25%↑) → 7.30. 42,980(61%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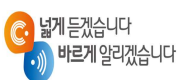
□ 홍부총리는 농축수산물 물가수준이 여전히 높고 폭염 지속  
· 태풍 피해 등 추가상승 리스크도 존재하는 만큼, 농축  
수산물 가격을 추석 전까지 안정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 
추석 성수품 공급규모 확대 및 조기공급, 수입물량 확대 등  
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

○ 특히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·무 정부 비축물량은  
전년대비 3배 이상, 사과·배의 추석전 계약 재배물량은  
전년대비 1.3~2배 확대하려는 계획과 관련, 현장에서의  
철저한 이행을 주문하고,

\* 비축물량(배추 1만톤, 무 5천톤), 추석 전 출하 계약물량(사과 14천톤, 배 12천톤)

- 특히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조치 철저, 작황 수시  
점검, 출하시기 조절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도 당부

- 또한 홍부총리는 간담회에 참석한 농식품부·aT측에게 7천원대에 정채되어 있는 계란가격이 조속히 6천원대로 인하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각오로 대응할 것을 주문
  - 특히 8월 1억개, 9월 1억개 수입 등 수입계란의 충분한 확보와 이러한 수입물량 공급이 소비자 계란 가격인하로 연결되도록 유통 점검을 각별히 당부
- 한편 홍부총리는 수입계란 판매현황, 소비자 계란 구매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마트 둔산점으로 이동하여 점검
- 이마트측은 7.8일부터 판매한 수입계란이 소비자 부담 완화에(30개 한판 4,990원에 판매)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, 7월 이마트 전체 매입수량이 완판되는 등 소비자 호응도 좋다고 설명
  - 이에 대해 홍부총리는 국내 계란가격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서는 당분간 수입계란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,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,
    - 이를 위해 ①8월 1억개, 9월 1억개 등 수입물량을 대폭 늘리고,
    - ②급식·가공업체에 주로 공급되어 온 수입계란이 소비자에게 더 많이 공급되도록 대형마트 등에 수입물량의 절반 이상 공급을 목표로 배정하며,
    - ③aT의 수입계란 공급가격도 8월 5일부터 1천원 인하(4천원→3천원)하여 30개 한판 3,000원에 공급, 소비자판매가격이 더 인하되어야 한다고 당부
- 아울러 홍부총리는 선물수요 등이 증가하는 추석기간 축산물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,
- 추석기간중 소고기는 평시대비 1.6배('20년 1.2배), 돼지고기는 1.25배('20년 1.15배)가 공급되도록 출하시기를 조정하고,
  - 수입도 평년대비 소고기는 10%, 돼지고기는 5% 확대할 수 있도록 수입 검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[moefpr@korea.kr](mailto:moefpr@korea.kr)

